

지역 소식통

정읍천 일원, 장애물 없는 현대식 화장실 3곳내달 개방

정읍시가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정읍천 일원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장애물 없는 현대식 화장실 3곳을 신축한다. 시는 내달 전면 개방을 목표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읍천 산책로와 주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꾸준한 수세식 화장실 추가 설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됐다. 시비 7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새롭게 화장실이 들어서는 곳은 시기동 미로분수와 어린이 축구장, 연지동 주민센터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총 3개소다.

특히 새롭게 신축되는 화장실은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예비 인증을 획득해 세심함을 더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물론 노인이나 임신부 등 교통약자 누구나 문턱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시는 오는 4월 중 시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저소득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부안군은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조사해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방범시설, 부엌,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등 생활 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1가구에 총 1억2000만원(복권기금 50%, 군비 50%)이며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 불량주택으로 보수가 시급한 주택부터 실시하게 되며 주택 보수를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교통망·에너지 도약 날개

이재명 대통령 전북 방문, 고창 대형 현안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약속 이끌어내 김윤덕 국토부장관 "서해안철도·노을대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검토"

민선 8기 고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형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며 비약적인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고창군의 숙원 사업인 서해안 철도 건설과 노을대교 건립, 그리고 에너지 산업 거점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면서 '활력 넘치는 고창'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창군의 지도를 바꿀 핵심 교통망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고창군민의 염원인 서해안 철도와 노을대교에 대해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망 구축의 과정에서 이를 적의하게 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과 부안을 잇는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립사업이 최근 실시

계 업체로 '동명기술공단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마침내 가시화되며 착공을 향한 가속도를 내게 됐다.

서해안 철도는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새로운 물류·관광 축으로, 노을대교와 시너지를 일으켜 고창을 서해안권 교통의 핵심 허브로 만들 핵심사업으로 손꼽힌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낭보가 전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상하면에 위치한 한국전력 고창 전력시험센터를 언급하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고창전력시험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에너지 관련 수요기업들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고창군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첨단 에너지 기술의 실증과 기업 유치에 이따붙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바람연금으로 기본사회 선도 모델 구축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전문가 강연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바람연금을 필두로 한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식과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을 넘어 오는 6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정식 출범에 앞서 군이 기본사회의 전환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준비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강남훈(사)기본사회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군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직후 이어진 강연에서 강 명예이사장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정책적 해안을 공유했다.

그는 "부안은 자연자원을 군민의 권리로 전환하는 가장 선진적인 실험장"이라며 군의 선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2.4GW 규모의 해상풍력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세계적인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이재명 대

이빈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고창의 역점사업들을 건의해 온 고창군수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고창군수는 그간 고창의 미래 먹거리는 사물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에너지 산업의 선점임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고창군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고창의 핵심 현안들이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고창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긴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공사 재개... 내년 상반기 개원 '박차'

정읍시가 겨울철 한파로 잠시 멈췄던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를 3일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내년 상반기 개원을 향해 박차를 가한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치유 공간으로 조성된다. 용적률 353%인 일원에 연면적 1686.6㎡,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개원 이후 조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다지

기도 한다. 현재 합리적인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운영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전통시장의 안전과 번영을 기리다

생고를·연지시장서 정월 대보름 맞아... '방화제' 성황리 개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올 한해 시장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방화제(防火祭)가 3일 생고을시장과 연지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생고을시장은 지난 1949년과 1957년 두 차례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이후, 1958년부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를 올리기 시작해 올해로 66회째를 맞이했다. 이제 방화제는 시장 상인들의 철저한 안전 의식을 매년 새롭게 되새기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날 방화제에는 유호연 부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요 관계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상인들과 함께 시장의 무재해를 간절히 기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생고을시장 방화위원회(위원장 이흥구)와 부녀회, 청년회는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떡국과 부럼을 나누고 귀박이

술 시음 등 정겨운 대보름 체험 행사를 제공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평소 바른 품행과 모범적인 학생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지역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상인들의 따뜻한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한편, 이날 방화제는 인근 연지시장에서도 나란히 열려 정읍 지역 전통 시장 전체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한층 더했다.

유호연 부시장은 "해마다 열리는 방화제는 시장 상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간절함이 담긴 숭고한 안전 다짐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기분 좋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상반기 도입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맞춤형 배차... 대기시간 단축 기대

정읍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택시'에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바우처택시'를 본격 도입, 통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장차(장애인 콜택시)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를 운영해왔으나, 비휠체어 장애인의 증가로 인한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 배차 지연이 고질적인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일반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이 있을 때 바우처 전용 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18대의 장애인콜택시와 4대의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20대의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정읍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대폭 늘어날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30분 이상 소요되던 평균 대기시간을 15분 내외로 단축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수요 시범운영 공모에 선정된 결과로, 올해 총 4억8,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비휠체어 승객 모두가 기다림 없이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정읍시는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통복지 1등 도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